

400m 계주 올림픽 티켓, 광주시청 육상팀에 달렸다

김국영·김태효·고승환·이재성 등 세계선수권 400m 계주팀 구성 대표 5명 중 4명이 광주시청 소속... 개인 기록 단축 초점 맹훈련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36년 만의 올림픽 본선 킷을 광주시청 육상팀이 쥐었다. 광주시청 육상팀 김국영(33), 김태효(31), 고승환(26), 이재성(22)은 이시문(23·안양시청)과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5월 5-6일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각 종목 상위 14위 팀은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된다. 한국 대표팀이 순위권에 들 경우 한국 육상 계주 36년만의 대회 본선 진출이자 올림픽 첫 자력 출전이 확정된다.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당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 남자 400m 계주에는 총 32개국도 출전을 내밀었으며 예선, 패자부활전, 결선을 거쳐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선수단 중 김국영, 고승환, 이재성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정태(28·안양시청)와 함께 한국 타이기록인 38초74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광주시청 삼재용 감독은 "아시안 게임에서 활약했던 세 선수와 컨디션이 올라간 김태효가 함께하는 만큼 광주시청 선수단이 한국 대표팀으로서 열심히 해서 기존 기록을 넘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5명의 대표팀 선수단은 27일 인천 선수촌에서 바하마로 떠나 현지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대회 경기는 4명이 치르며 예선과 패자부활전, 결선에서 계주 멤버를 교체할 수 있다. 대표팀은 계주 첫 번째 주자로 김태효 또는 이시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선수 모두 빠른 스타트가 강점이다. 남자 100m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인 김국영

은 이번 대회 계주 두 번째 주자로 나서 특출난 센스를 발휘하며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3번 주자로는 코너에 강한 이재성이, 4번 주자로는 가속이 좋은 고승환이 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현재 계획을 토대로 경기 직전까지 선수들의 몸상태를 지켜보며 계주 멤버를 확정하게 된다.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자메이카, 미국 등 육상 강국들과 단거리 속도전에 강한 일본 등 대표팀들 또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는 쉽지않은 도전이다. 대표팀은 한국 기록 경신과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개인 기록 단축에 초점을 두고 맹훈련에 임한다는 각오다. 한국 대표팀 코치로 선수단과 바하마로 가는 광주시청 노승섭 지도자는 "지금까지 자력으로 올림픽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개인 기록들이 어느정도 올라온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한국 기록을 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선 바통터치 등 팀워크도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과 훈련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김국영(왼쪽부터), 고승환, 이재성, 이정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입장 사진. <광주시체육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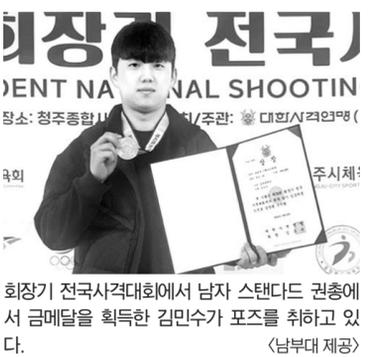
전국생활체육대축전서 광주 동호인들 기량 뽐낸다

오늘 개막... 29개 종목·570명 참가
광주시 선수단이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도전장을 내민다. 광주시체육회는 24일 게이트볼, 축구, 파크골프 등 29개 종목에 570명이 시 대표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울산시가 주최하는 2024 생활체육대축전은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 관내 57개소, 타시도 4개소 등 총 61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41개 종목에 6만여 명이 참가한다. 광주시 출전 선수 중 최고령인 김승중(85)씨가 게이트볼 종목에 참가해 노익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합기도 종목의 이우민(9)군은 광주 최연소참

가자로 갈고뒹은 기량을 뽐낼 계획이다. 이번 대축전 개회식에 8번째로 입장하는 시체육회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등을 홍보한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의 장인 대축전에서 모든 선수단이 부상 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남부대 사격 김민수 전국대회 금빛 총성



화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남자 스탠다드 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부대 제공>

스탠다드 권총 등 단체전에서 은2 합작 여자 공기소총 단체전도 은메달 획득
남부대 사격팀이 제40회 화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남부대 (총장 조준범) 김민수가 최근 청주종합사격장에 열린 화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남자 스탠다드 권총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수는 김도엽·박성준·송민섭과 출전한 남자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과 남자 센터파이어 권총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김민수는 하정성, 기민수, 박성준과 호흡을 맞춘 남자 공기권총 단

체전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다. 김소연은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연은 손진주, 김효빈, 김나연과 나선 여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부대 김순희 감독은 "힘든 훈련을 따라준 선수들이 고맙다. 이번 대회를 통해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언급했다. 유종상 부장 교수는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남부대 사격팀이 한국 사격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시꾼 스윙' 최호성, KPGA 챔피언스투어 우승

'남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사진)이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최호성은 24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CC(파72·6801야드)에서 열린 제3회 참마루건설 시니어오픈(총상금 1억5000만원)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6언더파 138타로 우승했다. 올해 KPGA 정규투어와 챔피언스투어, 일본 시니어투어에 병행하는 최호성은 우승 상금 2400만 원을 받았다. 1973년생 최호성은 챔피언스투어 두 번째 대회 출전에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임석규를 1타 차로 제친 최호성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3승, K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최호성은 "챔피언스투어 첫 우승을 달성해 기쁘다"며 "우승의 좋은 기운을 갖고 내일 개막하는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도 킷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6전7기' 윤석민, KPGA 프로 선발전 통과

"프로야구 첫 승 보다 기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였던 윤석민(사진)이 7번째 도전 만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제1차 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윤석민은 23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 솔라고CC(파71·7178야드)에서 열린 제1차 KPGA 프로 선발전에서 최종 합계 6오버파 148타를 기록해 출전 선수 121명 중 공동 20위로 KPGA 프로(준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번 프로 선발전에 도전했으나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윤석민은 "프로야구 데뷔 후 첫 승을 거뒀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 "마지막 도전에서 이렇게 꿈같은 결과를 얻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2005년부터 활약하며 KBO리그 통산 77승을 거둔 윤석민은 "4년 전 은퇴 후 골프를 통해 인생의 활력을 얻었다"며 "최근 야구 해설을 하며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KPGA를 알리는 데도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범죄도시4
- 2관 범죄도시4
- 3관 남은 인생 10년
- 4관 범죄도시4
- 5관 범죄도시4, 챌린저스
- 6관 범죄도시4
- 9관 범죄도시4, 몬스터 프렌즈
- 7관 새네거름 범죄도시4, 콧물맨더4, 오멘: 저주의 시작
- 8관 새네거름 파도, 댓글부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토)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